Symphony No. 1

- □□

정보

Witold Lutosławski:

Symphony No. 1
작곡가: Witold Lutosławski (1913–1994)
작품명: Symphony No. 1
장르: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작곡 시기: 1941–1947년
초연: 1948년 4월 6일, Katowice, Grzegorz Fitelberg 지휘, 폴란드 라디오 대교향악단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1(Lutos%C5%82awski)

Witold Lutosławski의 Symphony No. 1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하기 시작해 1947년에 완성한 네 악장 관현악 교향곡이다 . Allegro giusto, Poco adagio, Allegretto misterioso, Allegro vivace 가 차례로 이어지며, 전통적인 교향곡의 외형 안에서 복잡한 리듬과 높은 반음계성, 세밀하게 분할된 관현악 색채를 사용한다. 전쟁 중 쓰였지만 특정 사건이나 장면을 묘사하는 표제음악은 아니다.

개요
루토스와프스키는 1941년에 이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피신하면서 작업 중인 악보를 가져갔고, 전쟁이 끝난 뒤 1947년에 나머지 악장을 완성했다. 그는 훗날 이 작품이 전쟁 전에 구상한 ‘명랑한 ’ 성격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작곡 시기의 역사적 압박과 음악이 직접 전쟁을 묘사한다는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

그제고시 피텔베르크가 지휘한 초연은 1948년 4월 6일 Katowice에서 열렸다. 초연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듬해 폴란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 미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작품은 ‘형식주의 ’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동안 연주회장에서 사라졌다. 1950년대 후반 해빙기부터 재공연과 출판이 이어졌으며 , 1981년에는 루토스와프스키가 베를린 필하모닉을 직접 지휘해 이 작품을 다시 연주했다.

루토스와프스키 협회의 작품 해설은 이 교향곡을 고전적인 네 악장 틀과 현대적인 음고 ·리듬 언어가 만나는 초기 작품으로 설명한다. 후기의 우연성 기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전통 형식 안에서 관현악의 밀도와 화성의 긴장을 조직한 방식이 이 작품의 위치를 더 잘 보여 준다.

출판 정보와 자료

이 작품은 초연 지휘자 Grzegorz Fitelberg에게 헌정되었으며 , 폴란드 음악출판사 PWM과 Chester Music 에서 출판되었다 . 작품의 공식 카탈로그는 작곡 연대를 1941–1947년으로 기록하고 네 악장을 Allegro giusto, Poco adagio, Allegretto misterioso, Allegro vivace 로 제시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5분이다. Edward Gardner와 BBC Symphony Orchestra의 Chandos 녹음은 24분 36초이며, 악장별 시간은 제 1악장 4분 30초, 제 2악장 10분 15초, 제 3악장 4분 24초, 제 4악장 5분 13초다. 반복과
템포에 따라 실제 연주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편성

목관: 플루트 2(한 대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3(한 대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 3(피콜로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 포함), 바순 3(한 대는 콘트라바순 겸함)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기: 팀파니, 큰북, 차임, 심벌즈, 작은북, 서스펜디드 심벌, 탐탐, 탬버린, 우드블록, 실로폰 등
기타와 현악: 첼레스타, 하프, 피아노, 현악기

관현악 규모는 후기 낭만주의의 대편성에 가깝지만, 악기군을 한꺼번에 울리기보다 서로 다른 음역과 음색을 맞물리게 한다. 편성표에서 피콜로 ·잉글리시 호른 ·베이스 클라리넷 ·콘트라바순은 기본 악기의 겸주로 표시되며, 첼레스타와 하프, 피아노가 금관과 타악기의 강한 음향 사이에 다른 색을 보탠다.

악장별 구성

I. Allegro giusto

첫 악장은 D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고도로 반음계적인 소나타 형식이다. 첫 주제는 하나의 긴 선율보다 짧은 동기와 대위적 모방이 이어지는 묶음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주제는 D-flat에서 시작하는 서정적인 선율이며, 이후 동기 파편과 카논으로 다시 조직된다. Steven Stucky는 이 악장을 중심음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소나타로 설명해, 조성의 흔적과 화성의 이동을 함께 듣게 한다.

II. Poco adagio

느린 악장은 독주 호른의 긴 선율로 시작한다. 낮은 현의 반음계 반주가 그 선율 아래에서 움직이고, 목관은 선율을 이어받거나 짧게 끊어 놓는다. 형식은 첫 부분이 변형되어 돌아오는 A–B(A′)–B′–A″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오보에가 내놓는 두 번째 주제는 행진곡처럼 움직이지만 익살스러운 굴곡을 지니며, 이 대목은 Prokofiev의 그로테스크한 어법과 비교되어 왔다. 첫 주제의 어두운 선율과 저음 현의 반주는 Bartók의 관현악 작품을 연상시키는 색채를 만든다.

III. Allegretto misterioso

세 번째 악장은 트리오를 포함한 느슨한 스케르초다 . 주제와 왈츠풍의 대목이 번갈아 나타나고, 중간에는
금관과 타악기가 흐름을 거칠게 끊는다. 저음 현의 피치카토로 시작하는 특정 재료에는 12음렬에 가까운 음 배열이 쓰인다. Charles Bodman Rae의 분석은 이 재료가 두 개의 6음군과 그 변형으로 조직된다고
설명하지만 , 이를 전곡이 엄격한 12음기법으로 작곡되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루토스와프스키는 이 악장을 전쟁 장면의 음악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쟁 중 작곡되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배경이지만 , misterioso 가 가리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보다 불안정한 리듬과 음색의 진행이다.

IV. Allegro vivace

피날레는 브람스 교향곡의 일부 피날레를 모델로 삼은 대형 소나티나 형식으로 설명된다. 첫 주제는 목관과 연결되고, 트리톤 관계의 동기가 제 1바이올린에 나타난다. 전환부를 금관이 밀어붙인 뒤 독주 바이올린이
서정적인 두 번째 주제를 제시한다. 여러 악기군이 짧은 동기를 주고받으며 절정으로 향하고, 거대한 다화음의 울림이 가라앉은 뒤 D장조의 종지로 빠르게 질주한다.

수용과 연주

이 교향곡의 수용사는 음악적 형식과 정치적 제약이 겹친 사례다. 초연 직후에는 중요한 신작으로
호평받았지만 , 1949년 이후 ‘형식주의 ’라는 낙인이 작품의 연주 기회를 막았다. 1957년 무렵 출판이 재개되고 1959년 재공연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약 10년 뒤 Leopold Stokowski가 다시 연주했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두 기록은 금지에서 재등장으로 이어진 과정을 보여 주지만, 각각의 공연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981년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에서 루토스와프스키가 직접 지휘한 사실은 이 작품을 후기 작품으로 향하는 전 단계로만 보기는 어렵게 한다. 다만 이 곡에서 후기의 제한된 우연성 기법이나 자유로운 시간 구조를 찾기보다, 고전적 악장 배열과 대위적 동기, 반음계적 관현악을 한 작품 안에서 결합한 초기 언어에 주목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요 레코딩

Edward Gardner / BBC Symphony Orchestra (2012년 녹음, Chandos CHSA 5108):
전곡 24분 36초의 트랙별 시간이 공개되어 있으며, 작품의 네 악장 구조와 현대 오케스트라 편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Esa-Pekka Salonen / Los Angeles Philharmonic (Sony Classical): 루토스와프스키의
교향곡을 국제적인 현대 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안에서 다룬 녹음으로, 작품의 디스코그래피와 발매
정보가 공식 목록에 남아 있다.
Stanisław Skrowaczewski / NFM Wrocław Philharmonic (CD Accord ACD196): 루토스와프스키 교향곡 전집의 일부로 발매된 녹음이다. 작품별 발매 식별자는 작곡가 협회 디스코그래피에 기록되어 있다.
Antoni Wit / NOSPR (Naxos 8.554283): 폴란드 국립 라디오 교향악단과 함께한 녹음으로, Naxos 발매 목록에서 작품의 음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Witold Lutosławski Society, Catalogue raisonné: 작품의 작곡 연대, 네 악장, 헌정, 초연, 편성
약호, 악장별 분석.
Berliner Philharmoniker, “Witold Lutosławski’s First Symphony”: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기의
금지와 재공연, 1981년 베를린 필 공연, 작곡가의 자기 설명.
American Symphony Orchestra, “Symphony No. 1 (1947)”: 전쟁 중 작곡 경로, 바르샤바 봉기,
전쟁 표제 해석에 대한 작곡가의 태도.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1”: 초연과 재공연, 악장별 형식 ·화성 ·주제 분석, 상세 편성.
Chandos, CHSA 5108: Edward Gardner와 BBC Symphony Orchestra의 녹음 정보와 악장별 시간.
Witold Lutosławski Society, Discography: Salonen, Skrowaczewski, Antoni Wit, Lutosławski 지휘 녹음의 발매 식별자.